

2009. 9. 7 제222호

세계도시동향

목 차

문화·디자인

1. 공공미술 오디오 가이드와 함께 떠나는 도시 산책 (함부르크)
2. 주민과 이민자가 함께 채소를 재배하는 '인터내셔널 가든' 조성 (베를린)
3. 휴가철에 공원으로 책을 배달해줍니다 (파리)
4. 도시 문화행사로 발전한 미술장터 '오픈 에어 갤러리' (베를린)
5.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역사·문화 이벤트로 확대 (베를린)

산업·경제

6. 낡은 가전제품을 새 제품으로 바꾸면 구매가의 10% 보조 (상하이)
7. 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 (상하이)

건강·복지

8. 고교생의 학업 포기를 막기 위해 '인커리지 스쿨' 운영 (도쿄)
9. '어린이 마음진료 지원 거점병원 사업' 시행 (도쿄)
10. 이동통신사와 손잡고 음란광고물 추방운동 전개 (런던)
11. 저소득층 실직자에게 육아비용 지원 (런던)
12. 80세까지 치아를 20개 이상 유지하자는 '8020 운동' 전개 (도쿄)

목 차

방재·안전

13. 주민의 방재 의식을 높이기 위해 '2009 방재전' 개최 (도쿄)

도시환경

14. 저공해차 지정요건에 연비 추가 (도쿄)
15. 미국 최초로 '에너지 자립도시' 추진 (산호세市)
16. 교차로 신호등을 LED 전구로 교체 (런던)
17. 주민과 운동선수 모두 이용 가능한 최첨단 친환경 스포츠센터 개소 (런던)
18. 구립 체육관 지붕 위에 '나눔 정원' 조성 (파리)
19. 도시에서 나비의 이동경로를 관찰하는 프로그램 마련 (파리)
20. 집에서 화학 제초제 살포 금지 (베를린)

도시교통

21. 초보 자전거 통근자를 위해 '자전거 금요일' 행사 실시 (런던)
22. 차 없는 도심 거리에서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세요 (뉴욕)
23. 인공 지능형 노면 스테드(Road Studs) 시범 설치 (캘리포니아州)
24. 지능형 카메라를 설치해 교통 정체에 신속 대응 (런던)
25. 주요 역사·문화공간을 연결하는 지하철 55호선 개통 (베를린)
26. 市로 진입하는 장거리버스에 GPS 장착 의무화 (북경)

도시계획·주택

27. 주택을 처음 구입하려는 주민에게 저비용주택 공급 (런던)

1. 공공미술 오디오 가이드와 함께 떠나는 도시 산책 (함부르크)

○ 함부르크市 문화체육부는 도심 관광지의 주요 도로와 알스터 강변도로, 세계적인 유흥가인 레퍼반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공공미술 작품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90분짜리 오디오 가이드북을 제작함.

- 공공미술은 시민 누구나 감상할 수 있도록 도시의 도로나 광장, 공원, 공공건물 주변에 설치한 미술작품의 총체적 개념이지만, 작품을 만든 배경이나 작품의 예술적 가치, 작가의 작품세계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음.
 - 공공미술 오디오 가이드북은 미술작품과 건축물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일반적인 오디오 가이드북과는 다름.
 - 일반 시민이나 관광객을 대상으로 가이드가 실제로 설명하고 질문을 받는 것처럼 두 화자가 가볍게 질문하고 재미있게 대답하는 방식으로 녹음되었음. 예를 들면, “저기 서 있는 인형 같은 조형물은 뭐죠?”, “표현주의에 속하는 작품이라고 하셨는데 표현주의가 무엇인가요?” 등임.
- 공공미술 오디오 가이드북은 단순한 작품 설명만이 아니라 작품이 설치된 지역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됨.
 - 작품과 작가 소개, 작품을 설치한 과정과 제작비, 작품의 예술적 가치, 작품을 설치한 도로명의 기원, 그 지역의 주요 건축물의 용도, 저명인사의 생가나 활동공간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음.
 - 시민은 오디오 가이드가 설명해주는 작품을 따라 도로를 걸으면서 그 지역 전체를 체험하고 이해하게 됨.
 - 오디오 가이드북은 시민에게는 자신이 사는 도시에 애정을 갖도록 하고, 관광객에게는 무료 도시 가이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오디오 가이드북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市 홈페이지에서 도로별로 된 MP3 파일을 내려받아 MP3 플레이어나 휴대폰으로 들으면 됨.

(www.hamburg.de/kunstaudioguides/1612764/kunst-audioguides.html)

>>> 전문가 검토의견

- 도시의 역사에 숨겨진 다양한 가치를 발견하는 스토리텔링 기법 개발은 오래된 관광 촉진정책으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임.
- 오랜 문화유산을 가진 서울시도 지역의 역사와 가로, 건축물을 주제로 이야기를 개발해 이를 최첨단 기기로 들려주는 스토리텔링 개발이 필요함.
- 특히 북촌이나 삼청동, 청계천, 광화문 광장 등 도시의 역사가 스며있는 스토리 지역을 집중 개발해 지역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기법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함.

/라도삼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kuber21@sdi.re.kr)

2. 주민과 이민자가 함께 채소를 재배하는 ‘인터내셔널 가든’ 조성 (베를린)

- 인터내셔널 가든의 사회 통합적 기능을 주제로 한 여름 아카데미가 포츠담 대학 문화학과와 동유럽 및 북유럽 출신의 젊은 문화예술 경영자의 네트워크인 ‘Synaxis Baltica’ 주최로 2009년 7월 27일부터 8월 6일까지 포츠담 대학에서 열림.
- 인터내셔널 가든(Interkulturelle Gärten/Community Gardens)은 독일인과 독일에 사는 이민자가 함께 가꾸는 텃밭 형태의 농장임.
 - 7개국에서 온 아카데미 참가자는 베를린시와 포츠담시의 인터내셔널 가든을 방문한 뒤 워크숍을 열어 가든 운영현황과 새 가든 조성현황을 보고하고, 사회복지 관점에서 가든의 기능과 의미를 주제로 토론을 벌임.
 - 이 행사를 지원한 베를린시 통합·이민부는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는 베를린에서 다른 문화 간 교류를 돕는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인터내셔널 가든을 평가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 가든을 조성하는 데 지원을 늘리기로 함.
- 현재 독일에는 80여 개의 인터내셔널 가든이 운영되고 있고, 새로 조성 중인 곳도 60여 곳에 이룸. 베를린시와 포츠담시 지역에는 20여 개 가든이 운영되고 있음.

- 인터내셔널 가든은 같은 지역에 사는 타 민족 출신이 자기 고향의 채소나 과실수를 심고 가꾸면서 서로 교류하고, 재배한 채소나 과일을 서로 나누어 먹는 방식으로 운영됨.
- 대부분의 가든에는 아이가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있으며, 계절별로 다양한 행사나 축제를 벌이기도 함.
-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는 베를린市는 이민자가 자기 정체성을 찾으면서 새로운 이웃과 관계를 맺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하는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9/07/31/133682/index.html)

>>> 전문가 검토의견

- 베를린의 인터내셔널 가든은 다문화 사회를 통합하기 위한 최근의 정책사례로 보임.
 - 베를린은 터키, 동유럽, 아시아 등 다양한 문화권의 이민자가 공존하는 도시로, 市는 외국인 통합정책을 오래전부터 추진해왔음.
 - 기존 사회문화적 통합프로그램과는 달리 도시 내 텃밭을 이용한 통합정책은 피부에 와 닿는 정책으로, 실효성과 성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 서울시의 경우 아직까지는 서구 대도시에 비하여 외국인 비율이 많지 않지만, 향후 이민자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위 사례가 단계별 대응책으로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지역사회 통합이란 목표로 지역 내 텃밭을 조성하고 놀이터 등 공동활동이나 축제를 벌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서 노하우를 축적해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밀집지역인 혜화동, 서래마을, 구로동 등에 인터내셔널 가든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통합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김인희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ihkim@sdi.re.kr)

3. 휴가철에 공원으로 책을 배달해줍니다 (파리)

- 파리 시립도서관과 독서협회 주관으로 여름 휴가철을 맞아 2009년 9월 15일까

지 공원이거나 광장으로 책을 배달해주는 이벤트를 벌임.

- 이 행사는 청소년에게 독서를 권장하는 동시에 지역 도서관을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도서관 직원과 레크리에이션 전문가가 야외용 깔개, 책을 실은 수레, 파라솔 등을 준비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역사책, 이야기책, 그림책 등을 소개하고 독서를 도와줌.
 - 거의 모든 시립도서관이 참여하며, 도서관 이용자는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음.

(www.paris.fr/portail/accueil/Portal.lut?page_id=1&document_type_id=2&document_id=69510&portlet_id=21961)

4. 도시 문화행사로 발전한 미술장터 ‘오픈 에어 갤러리’ (베를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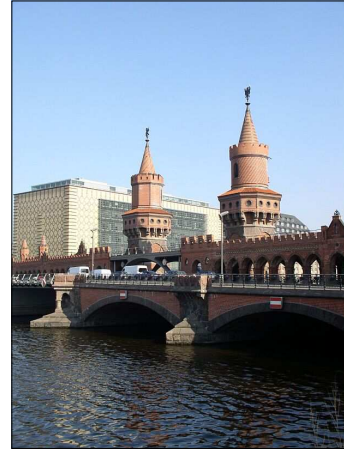
○ 베를린시의 유명 다리인 오버바움브뤼케(Oberbaumbrücke)에서 2009년 8월 첫 번째 일요일에 제7회 열린 미술장터인 ‘오픈 에어 갤러리’가 베를린 크로이츠베르크區의 주민조직인 지역발전위원회 주최로 열림.

- 100여 명의 젊은 미술가와 미대 학생이 소묘, 회화, 사진, 조각, 공예 작품을 다양한 계층의 관람객에게 선보이고 판매함.
 - 오픈 에어 갤러리는 행사를 거듭하면서 지역행사에서 市 전체행사로 발전해 현재 7개 대기업이 후원하고 市 도시발전부, 환경청, 녹지청이 지원함.
 - 행사 조직위원회는 작품 수준을 높이기 위해 참가자격을 제한함. 2009년에는 300명이 넘는 지원자 중 100여 명이 참가자격을 얻었음.
 - 참가 희망자는 매년 6월 말까지 작품 사진과 작가 이력서를 첨부해 지원해야 하며, 기성 작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심사하여 참가자격을 부여함.
 - 참가자격을 얻은 사람은 65유로(약 11만 원)의 참가비를 내야 함.
- 2009년 행사에는 시민과 관광객 등 약 2만 명이 장터를 찾았음.
 - 오버바움브뤼케는 슈프레 강 동쪽 가장 크고 교통량이 많은 다리인데, 행사

- 당일에는 교통이 차단됨. 다리 1층은 차량이, 2층은 지하철이 통과함.
- 시민과 관광객은 이곳에서 기존 갤러리와 달리 자유롭게 작품을 감상하고, 작가와 대화하며, 좋은 작품을 찾아 작가와 흥정하는 즐거움을 누림.



오버바움브뤼케에서 본 슈프레 강과 행사 광경



오버바움브뤼케

(www.openairgallery.de)

(www.berlin.de/kultur-und-tickets/events/open-air-gallery/index.php)

5.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역사·문화 이벤트로 확대 (베를린)

○ 베를린시는 2009년 8월 15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스포츠 행사에서 나아가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과 연계하는 문화행사로 확대하기 위해 브란텐부르크문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펼침.

- 이번 대회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이후 73년 만에 베를린에서 열리는 대규모 육상대회임.
 - 주경기장은 올림픽 스타디움이지만, 첫날 열린 경보대회와 마지막 날 마라톤대회의 출발과 도착 지점을 스타디움이 아닌 장벽 붕괴의 상징인 브란텐부르크문으로 함.
 - 개막식 문화행사도 브란텐부르크문 앞에 커다란 공연무대를 설치하여 거행함.
 - 브란텐부르크문과 연결된 운터 덴 린덴(Unter den Linden) 도로 주변을

- 역대 육상대회 사진을 감상할 수 있는 야외 전시장으로 꾸밈.
- 브란덴부르크문 앞 광장에 이른바 ‘문화 스타디움’을 설치하여 매일 경기 내용과 결과를 평가하고 베를린에 거주하는 예술가의 콘서트, 유명 요리사의 요리 쇼, 다음 대회 개최지인 대구市와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도 열.
 - 각종 육상종목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간이 체육시설과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시설도 설치해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 육상대회로 꾸밈.

(www.berlin.de/kultur-und-tickets/events/kulturprogramm-zur-iaaf-leichtathletik-wm2009/index.php)

(www.berlin2009.org/kultur)

한 줄 뉴스

- 브라질
 -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을 광고할 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는 내용 삽입 의무화
- 런던
 -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60% 줄이기 위해 약 80억 원 규모의 '에코 혁신펀드' 조성 추진

산업 · 경제

6. 낡은 가전제품을 새 제품으로 바꾸면 구매가의 10% 보조 (상하이)

○ 상하이市는 2009년 8월 15일부터 내수 확대를 위해 낡은 가전제품을 새 제품으로 바꾸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구환신'(以旧换新) 정책을 시행함.

- 2010년 5월 31일까지 새 제품으로 교환할 경우 구매가의 약 10%를 보조금으로 지급함.

· TV를 팔고 컴퓨터를 사는 경우처럼 낡은 제품과 새 제품의 종류가 달라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 보조금 혜택대상은 市 소재 법인과 거주자로 제한함.

· 소비자는 市에서 지정한 귀메이, 베스트바이, 까르푸 등 21개 대형매장에서 낡은 가전제품 회수증과 신분증을 제시하면 TV는 1대당 최고 400위안(약 7만 원), 냉장고는 최고 300위안(약 5만 원), 세탁기는 최고 250위안(약 4만 원), 에어컨은 최고 350위안(약 6만 원), 컴퓨터는 최고 400위안(약 7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음.

· 절전형 가전제품을 구입할 경우 절전형 가전제품 보조금도 받을 수 있음.

(www3.xinhuanet.com/chinanews/2009-08/16/content_17410264.htm)

7. 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 (상하이)

○ 상하이市는 ‘3211 바이오산업 행동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혁신제품 생산, 상업화에 집중 투자해 바이오산업의 생산규모를 2008년 1000억 위안(약 18조원)에서 2012년 2000억 위안(약 36조 원)으로 2배 정도 끌어올릴 계획임.

- 市는 이를 위해 연간 생산규모가 2억 위안(약 360억 원)이 넘는 혁신기업 100개와 연 매출액이 1억 위안(약 180억 원)이 넘는 선도제품 100개를 집중 육성할 방침임.

· 상하이 경제를 선도해나갈 차세대 9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선정된 바이오 산업이 중흥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됨.

-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존의 푸둥장장, 민항, 쉬후이, 평셴, 진산, 칭푸 등 6개 바이오단지의 상호보완적인 발전을 주요 과제로 삼음.

· 푸둥장장 과학단지는 상하이 바이오산업의 핵심기지로, 바이오신약과 바이오기기의 연구개발과 생산 기지로 집중 육성하며, 2012년 연간 생산 목표액은 300억 위안(약 5조 4600억 원)임.

· 민항 단지는 전국 최대 규모의 동물백신 연구개발과 생산 기지로 만들. 2012년 연간 생산 목표액은 150억 위안(약 2조 7300억 원)임.

· 쉬후이 단지는 국제 신약 임상연구 표준에 부합하는 임상시험 및 혁신제품 제조 기지로 구축해 중국 최고 수준의 생명과학 연구단지로 육성함. 2012년 연간 생산 목표액은 115억 위안(약 2조 955억 원)임.

· 평셴 단지는 첨단 화학약품과 한방 생약의 제조 기지로, 2012년 연간 생산 목표액은 100억 위안(약 1조 8000억 원)임.

· 진산 단지는 첨단 화학약품과 의료기기의 생산 기지로, 2012년 연간 생산 목표액은 100억 위안(약 1조 8000억 원)임.

· 칭푸 산업단지는 한방 생약과 건강식품의 제조 기지로, 2012년 연간 생산 목표액은 50억 위안(약 9000억 원)임.

(www.dfdaily.com/node2/node27/node120/userobject1ai182362.shtml)

한 줄 뉴스

● 뉴욕

- 보행자가 더위를 피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쿨링 센터(Cooling Center)를 시내 곳곳에 설치

● 미국 새크라멘토市

- 대규모 인구유입에 대비해 약 6조 원을 들여 1만 2000세대 규모의 주택단지 조성

건강 · 복지

8. 고교생의 학업 포기를 막기 위해 '인커리지 스쿨' 운영 (도쿄)

- 도쿄都是 2002년 3월부터 새로운 유형의 도립 고교인 인커리지 스쿨(Encourage School) 지정사업을 시행해왔는데, 그동안 5개 고교를 인커리지 스쿨로 지정함.

- 인커리지 스쿨은 학생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력함.
 - 주요 특징은 수업시간 단위가 30분이며 국어, 영어, 수학을 집중적으로 강의·학습함.
 - 학생 한명 한명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도록 1학급 2담임제로 운영하며, 학습 진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소수 인원 수업을 진행함.
 - 체험학습과 선택과목 수업을 늘리고, 학생 생활지도를 철저하게 하여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하고, 중퇴를 예방하는 데 힘씀.
 - 입학시험은 학력검사 형식을 따르지 않고 자기 PR카드, 소논문, 실기로 합격자를 가림.
 - 2003년 도립 고교 중 2개 학교를 처음으로 인커리지 스쿨로 지정한 이래 지속적으로 성과를 검증하고 중퇴 현황을 분석함.
- 인커리지 스쿨은 고교생의 학업 포기를 방지하는 것이 주목적이나, 학교별로 특수목적도 있음.

- 아키루다이 고교는 대학 진학 희망학과를 고려하여 수강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아다치히가시 고교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네리마 공고는 자격증 취득, 가마타 고교는 농가 체험과 자원봉사 활동에 역점을 둬. 히가시무라야마 고교는 스포츠 중심의 동아리 활동을 장려하고 치열한 경쟁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둬.

- 都是 향후 인커리지 스쿨의 운영 노하우를 도립 고교 중퇴자 대책에 활용할 예정이다.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8/20j8e100.htm)

>>> 전문가 검토의견

- 도쿄都是 도립 고교 중 일부 학교를 인커리지 스쿨로 지정하여 학교 운영과 수업 운영 등에 자율권을 주고 있음.
 - 45분 또는 50분 단위의 수업시간을 융통성 있게 30분으로 단축 운영할 수 있게 하고, 특정 교과를 집중 강의·학습할 수 있도록 함.
 - 인커리지 스쿨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의 학습속도에 맞춰 수업을 진행하고 1학년 2담임제를 도입해 학생의 학습과 학교생활을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한다는 점임.
- 우리나라도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 자율학교, 자율형 사립학교 등 다양한 학교 유형을 도입하여 기존 학교와 다르게 운영하고 있음.
 - 이들 학교에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편성, 납입금 결정 등의 영역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도쿄都처럼 1학년 2담임제나 학습속도에 맞춘 수업 진행과 같은 사항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음.
 - 서울시는 도쿄都처럼 초·중등학교를 특정 학교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앞으로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방법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혜숙 창의시정연구본부 부연구위원(lhsook1@sdi.re.kr)

9. ‘어린이 마음진료 지원 거점병원 사업’ 시행 (도쿄)

○ 도쿄 도립 우메가오카 병원은 2008년 7월부터 ‘어린이 마음진료 지원 거점병원 사업’을 都 복지보건국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음.

- 3년간 시행되는 이 사업은 지역 관계자와 제휴해 의료, 복지, 교육 등 어린이의 정신건강을 향상할 수 있는 사업을 펼치고, 유관 전문기관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어린이의 마음을 진료할 수 있는 전문 의료진이 부족할 뿐 아니라, 어린이의 정신건강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임.

- 이 사업은 ① 소아·청소년정신과적인 관점에서의 전문적 지원과 제휴, ② 지역 관계자 대상 강습회와 연수회 개최, ③ 소아·청소년정신과적인 관점에서의 계발 및 홍보활동 등의 3가지 분야로 나뉨.

· 2008년에는 ① 소아 심리치료 연락회와 아동상담소 연락회를 구성하고, ② 정신의료 관계자를 대상으로 8회 연속 강좌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고, ③ 도민을 대상으로 포럼을 개최함.

· 2009년에는 3개 분야 사업을 충실하게 추진하면서 폭력 예방 프로그램과 어린이 안전 프로그램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으며, 9월 23일에는 ‘어린이의 마음의 문제 : 성장단계별 발달 장애’란 주제로 도민 포럼을 열기로 함.

(www.metro.tokyo.jp/INET/BOSHU/2009/07/22j7u200.htm)

>>> 전문가 검토의견

- 도쿄都是 사춘기 아동에게 더욱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에 추진해오던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 지원 사업을 확대함.

· 정신과적 측면에서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을 결성하고 교직원과 아동 정신건강 관계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포럼을 개최하고 교육도 실시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함.

· 아동의 마음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것을 돕고, 정신과적 관점으로 사춘기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특징임.

- 서울시의 경우 2005년 서울시 소아·청소년 광역정신보건센터를 설립한 뒤 서울대학병원 소아정신과에 위탁하여 운영 중임.

- 이곳에서는 정신건강 증진사업, 학교 정신보건사업,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 사업,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자치구별로 설치되어 있는 서울시 정신보건센터 12개소에서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취약계층과 차상위계층의 자녀 중 초등학생의 정신과 외래치료비를 지원함.
- 최근 청소년기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센터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노은이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eyn@sdi.re.kr)

10. 이동통신사와 손잡고 음란광고물 추방운동 전개 (런던)

- 런던市는 市 명물인 공중전화 부스가 음란광고물로 뒤덮이는 등 부정적인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2012년 런던올림픽을 맞아 성의 상품화를 근절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와 손잡고 음란광고물 추방운동에 나섬.
 - 음란광고물 추방운동은 市가 자원봉사단체와 함께 음란광고물에 연락처로 기재된 휴대폰 번호를 해당 이동통신사와 경찰서에 보내면 이곳에서 휴대폰 번호 사용을 중지시켜 불법 성매매를 막는 방식으로 운영됨.
 - 市는 2009년 10월 주요 이동통신사와 런던경찰청, 검찰, 여성단체 관계자와 회의를 열고 함께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임.
 - 市는 2009년 4월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전략 보고서(The Way Forward)를 발간한 바 있음.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3240)

11. 저소득층 실직자에게 육아비용 지원 (런던)

- 런던市는 자녀가 있는 실직자를 돕기 위해 서민의 아이를 돌보는 프로그램에 1200만 파운드(약 240억 원)를 투자하기로 최근 발표함.
 - 市는 ‘경제회복 실행계획’(Economic Recovery Action Plan)의 일환으로 런

던 내 10개 자치구의 저소득층 2000세대에 앞으로 2년 동안 육아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함.

- 런던이 다른 지역보다 육아비용이 25%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나,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층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市는 자녀가 있는 수천 명의 실직자가 일자리를 구하는 데 이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www.london.gov.uk/mayors_daily_issue_archive.jsp)

12. 80세까지 치아를 20개 이상 유지하자는 ‘8020 운동’ 전개 (도쿄)

○ 도쿄都는 80세가 되어도 자신의 치아를 20개 이상 유지하자는 ‘8020 운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2010년 치과 보건목표 계획’을 마련해 도민의 치아건강을 위해 힘쓰고 있음.

-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 치아를 잘 유지하자는 8020 운동은 일본 후생노동성과 일본 치과의사회의 요청으로 1988년부터 펼쳐 왔음.
 - 2004년 추진실적을 중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의 충치가 감소하고 8020 달성자가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거둠.
- ‘2010년 치과 보건목표 계획’의 목표연도를 한 해 앞둔 2009년,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시책을 마련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앙케트 조사를 실시함.
 - 인터넷을 이용하는 20세 이상의 도내 거주자 중에서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500명을 조사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음.
 - 응답자의 88%가 ‘8020을 목표로 하고 싶다’고 대답하였고, 97%가 ‘치아 건강에 관심이 있다’고 답하였음.

(www.metro.tokyo.jp/INET/CHOUSA/2009/08/60j8a100.htm)

한 줄 뉴스

● 독일

- ‘그린 카’ 산업 육성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베를린에 4개의 수소충전소를 건설 중

● 도쿄

-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종합미술전’ 개최

방재 · 안전

13. 주민의 방재 의식을 높이기 위해 ‘2009 방재전’ 개최 (도쿄)

- 도쿄都是 방재 주간(2009년 8월 30일~9월 5일)을 맞아 도민의 방재 의식과 지식을 향상하기 위해 방재기관과 제휴하여 2009년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방재전을 엮.

- 올해 방재전 주제는 ‘눈앞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임.
 - 지진과 화재 대책뿐 아니라 가을철 신종 플루 감염 예방책, 수돗물 안전대책, 엘리베이터 안전대책, 역전 노숙자 대책, 안전 귀가 지도(地圖) 등을 주제로 전시함.
 - 방재 강좌는 지형으로 자연재해를 예측하는 방법, 시가지에서 방재마을 만들기, 집중호우 속에서 자신의 몸을 지키는 방법 등을 주제로 진행함.

(www.metro.tokyo.jp/INET/EVENT/2009/08/21j87100.htm)

도시 환경

14. 저공해차 지정요건에 연비 추가 (도쿄)

- 일본의 8개 도·현·시(도쿄都, 사이타마縣, 지바縣, 가나가와縣, 요코하마市, 가와사키市, 지바市, 사이타마市)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을 개선하고자 1996년 3월부터 저공해차 지정제도를 운영해왔음.
- 이 제도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를 저공해 자동차로 지정하여 이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 2009년 4월 8개 도·현·시는 저공해차 지정지침을 개정해 배출가스 평가지침에 연비 평가항목을 추가함. 이는 저공해차 지정지침에 교통부문의 지구온난화 대응 기능을 새롭게 추가한 것으로, 일본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것임.
- 2009년에 지정한 저공해차는 超저공해차, 優저공해차, 준超저공해차, 준優저공해차 등 4개 등급으로 구분해 스티커를 발부함.
 - 스티커는 잎사귀 모양으로 저공해, 저연비를 의미하며 위쪽에 있는 백색 잎사귀 모양의 수가 많을수록 상위 레벨을 나타냄.
 - 超저공해차는 도요타(주)의 프리우스 등 37건, 優저공해차는 9건, 준超저공해차는 8건, 준優저공해차는 1건이 지정되었음.



저공해차 스티커 예시(超저공해차)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7/20j7v201.htm)

>>> 전문가 검토의견

- 최근 일본의 8개 도·현·시가 저공해 자동차 지정요건에 연비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분류체계를 새롭게 마련한 것은 자동차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지구온난화 대응이란 세계적인 추세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선도적인 그린 카(Green Car) 보급정책이라고 판단됨.

- 특히 저공해 기준에 저연비 항목을 추가한 저공해 자동차 인증제도는 자동차 산업의 환경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일 뿐 아니라, 시민의 친환경자동차 선택을 유도해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해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자동차 환경관리정책임.
- 서울시는 ‘서울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계획’(2009. 7. 2)을 마련하고 건물 부문의 에너지 대책과 중장기 그린 카 보급정책을 저탄소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전략으로 고려하고 있음.
- 그린 카 보급정책의 경우 자동차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함께 도모하는 공편익(Co-benefit)을 전제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서울시는, 중앙정부가 향후 자동차 세제기준 개편과정에서 연비기준을 도입할 경우를 고려하여 친환경자동차 인증제도 도입과 활용단계에서 연비 평가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사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김운수 기후변화대응 연구센터장(woonkim@sdi.re.kr)

15. 미국 최초로 ‘에너지 자립도시’ 추진 (산호세市)

-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시의회는 미국 최초로 유기성 폐기물에서 바이오가스(Biogas)를 만드는 시설 건립에 착수하는 것을 승인함.
- 이 사업을 시행하면 약 3년 후에는 최대 15만 톤의 유기성 폐기물에서 바이오가스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유기성 폐기물에서 생성되는 바이오가스는 대부분 쓰레기 매립장에서 공급되며, 이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여 사용함.
 - 바이오가스로 에너지원을 대체할 경우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을 50% 줄이고, 나머지 50%의 에너지도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미국에서 열 번째로 큰 도시인 산호세市는 에너지 전량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16. 교차로 신호등을 LED 전구로 교체 (런던)

○ 런던교통공사는 버스 정류장에 있는 승차권 발매기에 설치한 발광다이오드(LED) 전구를 교차로 신호등에도 설치하기로 함.

- 2400만 파운드(약 49억 3000만원)를 투입해 300개 교차로에 있는 3500개 신호등을 에너지 효율이 높고 수명이 긴 LED 전구로 교체함.

· 매년 300개 신호등을 LED 전구로 교체할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간 600톤 줄일 수 있으며, 전기료도 연간 20만 파운드(약 4억 1000만 원) 절약할 수 있음.

· 런던市 내 6000여 개의 교차로 신호등을 모두 LED 전구로 교체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간 1만 2000톤 줄일 수 있음.

- 이 사업을 시행하면 친환경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LED 전구 시장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런던교통공사는 2007년 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남부 크로이돈에 LED 신호등을 시범 설치하여 시장성과 효과 등을 점검한 바 있음.

· 市는 앞으로 지하철, 터널 등에도 LED 전구를 설치해 나갈 계획임.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3239)

17. 주민과 운동선수 모두 이용 가능한 최첨단 친환경 스포츠센터 개소 (런던)

○ 4500만 파운드(약 9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최첨단 친환경 스포츠센터인 크롬프톤 스트리트 센터(The Crompton Street Centre)가 런던市 웨스트민스터 區에서 최근 문을 옴.

- 區는 센터에 옥상녹화 세덤 新공법(Sedum Roof)을 도입하여 건물 윗부분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실내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함.

- 市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건물의 친환경 개조사업에 발맞추어 시민이 이용하는 자치구 시설에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첨단 환경기술을 도입하였다는 점이 주목할 사항임.

- 市는 2012년 런던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일반 시민과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 시설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지역사회 체육시설 확충이란 의미도 있음.

- 특이점은 운동선수를 위한 훈련 모니터링 체계도 함께 갖춰 엘리트체육 시설을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임.
- 배드민턴장, 댄스 연습실, 헬스장 등을 장애인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각종 구기종목과 격투기도 즐길 수 있도록 함.
- 관할구역 내의 학생, 청소년, 노인 등에게 할인이나 우선예약 혜택도 제공함.

(www.londoninformer.co.uk/london-news/london-local-news/2009/08/11/state-of-the-art-sports-hall-opens-113489-24435272)

18. 구립 체육관 지붕 위에 ‘나눔 정원’ 조성 (파리)

○ 파리市는 파리 20區 체육관 콘크리트 지붕 위 약 600㎡의 공간에 주민이 공동으로 가꾸는 ‘나눔 정원’을 조성함.

- 약 30cm 높이의 나무 상자에 흙을 채워 테라스를 만들었으며, 상자 주변에 배수로를 만들어 빗물을 배출하도록 함.

- 정원 양 끝에 해바라기로 울타리를 만들고, 약 5만 마리의 벌이 있는 벌통도 정원 근처 발코니에 설치함.
- 외부 계단을 이용해 올라갈 수 있으며, 몸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 엘리베이터도 설치할 예정임.
- 지역 주민은 현재 이곳에서 야생초, 해바라기, 채소 등을 키우고 있음.

- 이러한 콘크리트 공공정원은 20區 생 블레즈 지역 등에서도 조성 중임.

(www.paris.fr/portail/accueil/Portal.lut?page_id=1&document_type_id=2&document_id=71952&portlet_id=21961)

한 줄 뉴스

- 상하이
 - 환경기준 미달차량의 운행 제한을 강화하고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 부과
- 도쿄
 -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종합미술전' 개최

19. 도시에서 나비의 이동경로를 관찰하는 프로그램 마련 (파리)

○ 파리는 도시생태 보존대책으로 나비 관찰 프로그램을 마련함.

- 생태다양성 보전협회와 국립 자연사박물관이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은 도시 속 곤충의 이동경로를 파악해 생태다양성 보전 연구에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도시 내 녹지대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 속 나비 생태를 파악하는 연구에 시민이 참여하도록 함.
- 파리는 나비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한 첫 번째 사업으로 2009년 7월 21일 자당 데 플란츠 공원에서 배추흰나비를 놓아주었으며, 앞으로도 몇 번 더 이 같은 행사를 진행할 계획임.
 - 식별이 가능하도록 나비의 날개에 빨강, 파랑, 녹색 등으로 색깔을 달리 표시함.
 - 나비를 발견하면 표시한 색깔, 발견 일시와 장소를 생태다양성 보전협회 (www.noeconservation.org)나 국립 자연사박물관으로 알려주면 됨.

(www.paris.fr/portail/accueil/Portal.lut?page_id=1&document_type_id=2&document_id=71754&portlet_id=21961)

20. 집에서 화학 제초제 살포 금지 (베를린)

○ 더운 날씨로 잡초가 빨리 자라 제초제 불법 살포가 늘어날 것을 우려한 베를린市는, 일반 거주지에서는 사람과 동물,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제초제 살포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시민에게 집중 홍보함.

- 독일에서 제초제 살포를 금지한 이유는 화학물질이 자연을 해칠 뿐 아니라 상수도와 지하수까지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임.

· 독일에서는 농경지와 산림지에는 법적으로 허가된 제초제 살포를 허용하고 있지만, 일반 거주지에서는 기계나 열을 이용한 제초만 허용함.

· 市는 제초제 사용금지 이유, 특별 사용허가를 받기 위한 법적 절차, 불법 살포 시 최고 5만 유로(약 9000만 원)의 벌금 부과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지하고 있음.

(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0908/nachricht3570.html)

도 시 교 통

21. 초보 자전거 통근자를 위해 ‘자전거 금요일’ 행사 실시 (런던)

○ 최근 런던교통국(Transport for London)은 자전거 통근을 촉진하고자 초보 자전거 통근자를 직접 안내해주는 ‘자전거 금요일’(Cycle Fridays) 행사를 2009년 10월 2일까지 매주 금요일에 실시함.

- 이 행사는 8주 동안 진행되는데, 초보 자전거 통근자는 매주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전문 자전거 이용자의 안내를 받으면서 런던으로 통근하게 됨.

· 市는 초보 자전거 통근자가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자전거 타기가 즐겁고 유익하고 편리한 것임을 느끼도록 할 계획임.

· 런던교통국은 홈페이지(www.tfl.gov.uk/cycling)를 이용해 자전거 지도를 제공하고, 무료훈련 예약코너도 마련함.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3218)

>>> 전문가 검토의견

- 자전거의 생활화는 세계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임.
 - 런던市 사례의 특징은 자전거 이용자에게 한걸음 더 다가간 점임. 전문 자전거 이용자의 안내를 받으며 통근할 수 있어 자전거 출퇴근을 처음 시도하는 이는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음.
- 서울 시도 자전거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런던市 사례를 적용해볼 필요가 있음.
 - 현재 서울시의 도로환경은 자전거 통행자에게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전거를 잘 탄다는 이유만으로 자전거 출퇴근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음. 이러한 환경에서 전문 자전거 이용자의 도움은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이신해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newsun@sdi.re.kr)

22. 차 없는 도심 거리에서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세요 (뉴욕)

- 뉴욕市 교통국은 서머 스트리트(Summer street) 행사를 2009년 8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토요일 아침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엮.
 - 도로망을 이용해 시민이 자유롭게 산책과 자전거 하이킹, 조깅 등을 즐길 수 있도록 市가 기획함.
 - 시민은 이날 원하는 장·단기 코스를 정해 자전거, 도보, 인라인 스케이트 등으로 거리를 자유로이 확보함.
 - 브루클린 다리, 센트럴 파크, 허드슨 강 순환도로, 거버너 아일랜드 등에서 행사가 펼쳐짐.
 - 경찰국을 포함한 관내 9개 행정기관이 행사를 지원하고, 6개 기업과 5개 미디어가 후원함.

- 市는 이 연례행사가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대안 교통수단(도보 및 자전거)을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힘.



(www.nyc.gov/html/dot/summerstreets/html/about/about.shtml)

23. 인공 지능형 노면 스티드(Road Studs) 시범 설치 (캘리포니아州)

- 캘리포니아州 교통국은 교통체증이 심한 프리웨이 5번과 110번 교차구간을 대상으로 뉴질랜드에서 개발한 스마트 스티드(Smart Stud)를 이용한 첨단 가변차로제를 시범 운영할 예정임.

-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스마트 스티드가 자동 점등되어 정체구간의 연결도로를 1차로에서 2차로로 늘려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음.
 - 인공 지능형 노면 스티드(Road Studs, 차선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노면에 설치한 노선 표지병)는 기존의 반사광보다 훨씬 밝은 빛을 낼 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색깔로 바뀌며, 켜거나 끌 수 있음.
 - 이 노면 스티드는 노면 아래에 매설한 전선에서 비접촉식(무선)으로 전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설치가 쉬울 뿐 아니라, 주·야간이나 날씨에 관계없이 밝은 빛을 낼 수 있음.
 - 기상조건이나 교통흐름 같은 정보를 함께 보내면 각각의 스티드에 내장된 센서가 신호를 감지하고, 빛의 강도나 색상을 변화시켜 사고를 예방하거나 교통 통제를 원활하게 함.
 - 320만 달러(약 4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된 이 시범 사업은 2009년 8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완공할 예정임.

(www.latimes.com/news/local/la-me-smart-freeway31-2009jul31,0,458878.story)

한 줄 뉴스

● 런던

- 스포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30개 운동종목을 대상으로 무료 강습 실시
- 보행·자전거 이용·차량 통행 방해 등의 이유로 2011년까지 굴절버스 운행 폐지
- 도심부의 거리를 재생하기 위한 '도심부 2012 비전' 마련
-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음식재료 재활용 캠페인 전개

24. 지능형 카메라를 설치해 교통 정체에 신속 대응 (런던)

○ 런던교통공사는 교통 정체를 포착하는 즉시 교통통제시스템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상황을 보고하는 지능형 카메라 기술을 민간업체와 공동 개발함.

- 市는 주요 도로의 교통흐름에 문제가 있을 때 이를 포착할 수 있는 특수 영상감지기술로 만든 카메라 20대를 주요 지점에 설치함.

·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 뒤 문제 지점을 정확히 포착한 영상정보를 이용해 교통 정체에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함.

- 영상 인식 교통사고 탐지(IRID; The Image Recognition Incident Detection) 기술은 런던교통공사 기술팀과 Ipsotek社가 공동 개발함.

· 개발 비용으로 3년간 16만 파운드(약 3억 2000만 원), 카메라 설치비용으로 4만 5000파운드(약 9000만 원)가 들었음.

· 카메라 설치 이후 통제센터로 보고되는 경보 건수는 매일 8~10건 정도로 80%의 적중률을 보임. 2009년 2월 현재 인력(경찰 통제실, 교통경찰, 일반 시민)으로 탐지한 사고건수(64건)와 비교하면, 사고 탐지율이 높음.

- 市는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의 경우 교통 신호체계 개편 등 장기적으로 교통 흐름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에 탐지영상정보를 활용할 계획임.

(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12398.aspx)

25. 주요 역사·문화공간을 연결하는 지하철 55호선 개통 (베를린)

○ 베를린市는 새 지하철노선 '55호선'을 최근 개통함. 새 노선은 브란덴부르크문에서 베를린 중앙역까지 총 길이 1.8km의 3개 구간을 연결한 미니 노선임.

- 1919년에 구상한, 베를린 동서를 연결하는 지하철 교통망 계획의 첫 사업이라 55호선 개통의 역사적 의미가 큼.

· 지하철 건설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1950년대에는 알렉산더 광장에서 베를린 동쪽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5호선을 베를린 중심부를 거쳐 서쪽으로 연장하려고 했는데, 동·서독 분단으로 실행하지 못했음.

· 이로부터 40년이 지난 1990년대에 공사를 시작했으나, 통일 후 베를린의 재정비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 2001년 재원 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함. 당시 공사를 진행하였던 곳이 베를린 중앙역, 독일 연방하원역, 브란덴부르크문역 등 3개 구간이었음.

· 2004년 市와 연방정부는 우선 3개 구간만이라도 미니노선의 형태로 완성하기로 하고, 공사를 다시 진행해 2009년 8월 8일 미니구간을 개통하게 됨.

· 3개 구간을 개통하는 데 든 비용은 3억 2000만 유로(약 5700억 원)임.

· 市는 이번 개통을 계기로 4억 3300만 유로(약 7700억 원)를 더 들여 원래 계획대로 2017년까지 전 구간을 개통해 베를린 동쪽을 오가는 지하철 5호선과 연결하기로 함.

· 전 구간이 개통되면 베를린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적 공간, 즉 베를린 중앙역, 연방하원, 브란덴부르크문, 문화 중심도로인 운터 덴 린덴, 박물관 섬(재건될 베를린 성과 연결), 알렉산더 광장(베를린 시청)이 한 노선으로 연결됨.

- 3개 구간이 연결하는 지역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의 중요성과 빈도를 고려하면 미니노선 개통의 역사·문화적 의미가 큼.

· 브란덴부르크문역 내부는 분단과 통일의 역사를 보여주는 영상물을 상영하는 문화공간으로 꾸며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됨.

· 그동안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했던 연방정부 공무원과 관광객이 더욱 빠르고 손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됨.



55호선 브란덴부르크문역

(www.spiegel.de/reise/aktuell/0,1518,641213,00.html)

(www.bvg.de/index.php/de/Bvg/Detail/folder/991/rewindaction/Index/archive/0/year/2009/month/8/id/232952/name/Die+U55+ist+fertig+gestellt)

26. 市로 진입하는 장거리버스에 GPS 장착 의무화 (북경)

○ 북경市는 북경으로 들어오는 모든 장거리 여객버스에 GPS 장착을 의무화해 2009년 말까지 이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힘.

- 현재 북경市 전체 여객버스의 81%인 2976대의 장거리버스에 GPS를 장착함.
 - GPS는 전체 교통흐름을 조절하고, 차량 도난을 막으며, 실시간으로 차량의 과속과 운전자의 피로도를 감지할 수 있음.

(zhengwu.beijing.gov.cn/bmfu/bmts/t1073974.htm)

(北京日报, 2009. 8. 13)

한 줄 뉴스

- 중국
 - 기업을 대상으로 직원의 기능·직무 교육비 적립 의무화 추진
- 북경
 -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 숫자형 횡단보도신호등을 확대 설치
 - 2001년 132개에서 2009년 1163개로 약 9배 늘어난 공원을 주요 관광자원으로 활용

도시계획·주택

27. 주택을 처음 구입하려는 주민에게 저비용주택 공급 (런던)

○ 런던市는 최초 주택구입 대상자의 75%가 자신이 ‘저비용주택 프로그램’(Low Cost Housing Scheme)의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보완대책을 마련함.

- 市는 그동안 최초 주택구입 대상자에게 저비용주택 프로그램을 제대로 홍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첫 시도’(First Step) 주택 프로그램을 2009년 3월부터 시행하여 더욱 공평하고 쉽게 저비용주택 구입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함.
 - 교사, 경찰, 간호사뿐 아니라 연간 소득이 2만 파운드(약 4000만 원)에서 6만 파운드(약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중산층까지 대상에 포함함.
 - 市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저비용주택 구입 정보를 널리 홍보해 주택의 자가 소유비율을 늘릴 계획임.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3198)

